



정해영 2연패냐, 박영현·김원중·김서현이냐... 구원왕 경쟁 '활활'

프로야구 구원왕 전쟁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지난해 세이브 1위를 차지한 정해영(KIA 타이거즈)이 2년 연속 구원왕 등극을 노리고 있고, 박영현(KT 위즈)과 김원중(롯데 자이언츠), 김서현(한화 이글스)도 전반기 종료 전 20개 이상의 세이브를 거두며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올 시즌 가장 먼저 20세이브 고지를 밟은 것은 박영현이다.

시즌 초반 다소 주춤했던 박영현은 5월 한 달 동안 궤조의 컨디션을 자랑하며 세이브 선두로 나섰다. 5월에 13경기에서 10세이브를 수확했고, 평균자책점이 1.20에 불과했다.

박영현은 6월 들어서는 주춤했다. 10경기에서 2개 세이브 평균자책점 3.12에 머물렀다.

5차례 세이브 기회에서 두 차례 불륜세이브를 저질렀다. 지난달 12일 롯데 자이언츠전에서는 ⅔이닝 5실점(1자책점), 26일 LG 트윈스전에서는 1이닝 2실점으로

지난해 구원왕 정해영, 21세이브로 3위

KT 박영현, 23세이브로 선두... 김원중·김서현도 추격

무너져 패전의 멍에를 썼다.

하지만 박영현은 7월 첫 등판인 2일 키움 히어로즈전에서 1⅓이닝 무실점을 작성하고 23번째 세이브를 수확, 이 부문 단독 선두 자리를 굳게 지켰다.

풀타임 마무리 첫 해였던 2024시즌 25세이브로 4위에 오른 박영현은 생애 첫 구원왕을 향해 달려가는 중이다.

6월에 박영현이 주춤하는 사이 다른 경쟁자들이 맹렬하게 추격했다. 2일 현재 김원중이 22세이브로 박영현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 2020년부터 롯데의 뒷문을 지키고 있는 김원중은 이번 시즌 초반부터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세이브 부문 5위 이내 선수 중 유일한 30대지만, 견제함을 뽐내고 있다. 5월에 나선 10경기에서는 11이닝을 던지는 동안 한 점도 내주지 않았다.

김원중은 지난 6월 18일 한화 이글스전에서는 롯데 구단 사상 최초로 개인 통산 150세이브 고지를 밟았다. 6월 20일 삼성 라이온즈전에서는 박영현에 이어 두 번째로 시즌 20세이브를 채웠다.

전문 마무리 투수로 5시즌을 보냈지만 김원중이 구원왕에 오른 적은 없다. 2021년 개인 한 시즌 최다인 35세이브를 거뒀는데 44세이브를 기록한 오승환(삼성)에 밀려 2위가 됐다.

지난해 구원왕인 정해영은 21세이브로 3위를 달리며 2년 연속 세이브 1위 등극을 바라보고 있다.

프로 2년차인 2021년부터 마무리 투수로 활약 중인 정해영은 지난해 31세이브를 수확해 생애 첫 구원왕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타이거즈 소속 선수의 구원왕 등극은 1998년 임창용 이후 26년 만이었다.

역대 최연소 100세이브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정해영은 올해에도 각종 최연소 기록을 썼다. 5월 13일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5시즌 연속 두 자릿수 세이브, 6월 28일 LG 트윈스전에서 5시즌 연속 20세이브를 모두 최연소로 달성했다. 5시즌 연속 20세이브는 역대 3번째 기록이다.

2년 연속 세이브 1위를 차지한 것은 2013~2014년 당시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소속이었던 손승락이 마지막이다. 정해영이 올해에도 구원왕에 오른다면 11년 만에 2연패를 달성하게 된다.

독수리 군단 수호신으로 올라선 김서현의 기세도 매섭다. 20세이브로 4위를 달리며 구원왕 경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중간계투로 시즌을 시작했던 김서현은 마무리 투수로 낙점을 받았던 주현상의 부진으로 갑작스럽게 중책을 맡았다.

그러나 시속 160km에 육박하는 강속구를 앞세워 든든한 뒷문지기로 거듭났다. 4월에만 8개의 세이브를 수확한 김서현은 6월에도 10경기에서 5세이브, 평균자책점



0.93을 작성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갔다.

김서현은 현재 20세이브 이상을 기록 중인 투수 중 평균자책점이 1.42로 가장 낮다.

프로 3년차에 잠재력을 한껏 꽃피운 김

서현은 올해 올스타전 팬 투표에서 역대 최다 득표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한화 소속 선수가 세이브 1위에 오른 것은 2018년 정우람 이후 나오지 않았다. 김서현이 1위로 시즌을 마치면 한화는 7년 만에 구원왕을 배출한다. /뉴스

프로야구 뜨거운 흥행 열기... 역대 최초 전반기 '700만' 관중 돌파

역대급 흥행 물의를 하고 있는 프로야구가 역대 최초로 전반기에 700만 관중을 돌파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일 열린 5개 구장에서 총 7만6723명의 관중이 입장했다고 밝혔다.

올 시즌 누적 관중 700만7765명으로 역대 최초 전반기 700만 관중을 달성했다.

역대 최초로 1000만 관중 시대를 연 2024시즌에는 후반기가 진행 중이던 7월 27일 487경기 만에 700만 관중을 넘어섰다.

이번 시즌에는 이 기록을 82경기 단축하며 역대 최소 경기 700만 관중도 달성했다. 405경기 만에 700만 관중을 불러 모았다.

또 지난달 17일 600만 관중을 달성

한 후 15일 만, 55경기 만에 700만 관중을 달성하며 역대 600만 관중에서 700만 관중 달성까지의 최소 일수와 최소 경기수 기록도 각각 경신했다.

이번 시즌 평균 관중 수는 1만7303명으로 지난 시즌 동일 경기수 대비 약 17% 증가했다.

삼성 라이온즈가 평균 관중 2만2653명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 LG 트윈스가 2만1651명, 롯데 자이언츠가 2만839명으로 뒤를 이었다.

두산 베어스는 1만9713명, SSG 랜더스는 1만8554명, 한화 이글스는 1만6922명, KIA 타이거즈는 1만6686명을 기록, 7개 구단이 평균 관중수 1만6000명을 넘는다는 10개 구단 모두 평균 관중수가 1만명 이상이다.

삼성은 홈 경기 총 관중수에서도 1위

에 올라 있다. 홈 43경기를 치르는 동안 97만4094명의 관중을 동원하며 100만 관중 돌파를 눈앞에 뒀다.

LG는 90만9362명, 롯데는 87만5249명, 두산은 80만8218명, SSG는 76만711명의 관중이 입장했다. 10개 구단 중 5개 구단이 70만 관중을 넘겼다.

프로야구의 뜨거운 흥행 열기 속에 매진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405경기 중 절반에 가까운 196경기(48%)가 매진됐다.

한화가 홈 39경기 중 35차례로 가장 많은 매진을 작성했고, 삼성이 홈 43경기 중 33차례, 롯데가 홈 42경기에서 30차례, LG가 홈 42경기에서 26차례를 기록하는 등 4개 구단이 20차례 이상 만원 관중을 달성했다.

/뉴스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가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PREMIUM6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패적인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암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카페스테이션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종외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세형 운암 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세영 GS건설 | (주)한화/건설 | HDC현대산업개발



무안군, 전남 첫 스포츠클럽체육대회서 존재감 빛낸다!

배드민턴·파크골프·축구 등 전 종목 고른 활약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 소속의 무안공공스포츠클럽(회장 고비호) 및 FC무안축구스포츠클럽(회장 임달빈)이 제1회 전라남도 스포츠클럽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첫 대회에서 강한 존재감을 빛냈다.

전라남도체육회가 주최하고, 목포스포츠클럽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목포시 일원에서 전남 22개 시군, 36개 클럽 소속 880여명이 참석하였다.

무안군은 2개 클럽 소속의 68명이 참가

하여 무안공공스포츠클럽은 배드민턴 초등부 단식 준우승 및 3위, 파크골프 여자부 3위를 차지하였고, FC무안축구스포츠클럽은 초등부 3-4학년 우승 및 5-6학년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거뒀다.

김산 무안군수는 "도단위 생활체육인들을 위한 대회가 개최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군민이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안군 제공